

시드니 시민들의 '안식처' 팜비치

글·사진 이경욱

호주에는 즐잡아 수천개의 비치(Beach·해변)가 있다. 사면이 모두 바다인 대륙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들 비치 가운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숏하다.

시드니 시내에만 수십 개의 비치가 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본다이비치(Bondi Beach),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모두 즐겨 찾는 맨리비치(Manly Beach) 등이 유명하다. 짧은 일정으로 시드니를 찾은 관광객들은 으레 본다이·맨리 비치를 둘러보고 떠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정에 여유가 있거나 정보가 빠른 관광객들은 인파가 북비는 이들 유명 비치를 접어두고 시드니 주변 곳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비치로 향한다.

팜비치(Palm Beach)는 호주인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해변 중 하나다. 시드니 시내에서 승용

차로 40분 정도 달리면 나온다. 가는 길에는 콜라로이비치(Collaroy Beach), 빌골라비치(Bilgola Beach), 웨일비치(Whale Beach) 등 아름다운 해변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팜비치는 시드니 앞바다에 마치 촛불처럼 떠 있는 곳의 꼭대기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다른 비치보다 약간 모래가 거친 느낌이다.

시드니 지역의 날씨가 며칠째 흐리다가 필자가 팜비치를 찾은 날 기적과도 같이 태양이 구름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호주주(州)의 경우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시드니는 좀 달랐다. 늦가을 날씨가라고 해야 할까.

방학이라고 하지만 평일이어서 인파가 몰리지는 않았다. 바다를 좋아하고 시간만 나면 비치에서 뒹굴며 여가를 보내는 시민들이 파라솔과 텐트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여름을 붙잡으려 애쓴다.

비치를 찾은 해수욕객은 수십명 정도. 그래도 모래 언덕 위에서는 여러 명의 수상구조 요원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

팜비치는 고즈넉하다. 아름드리나무가 국도와 비치의 경계를 이루는 모습이 절경이다. 바닷가 언덕에 들어선 호화주택들도 눈요깃거리다.

바다에서 놀다가 지치면 구불구불 이어진 동네 길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것도 묘미다. 멀리 보이는 남태평양이 막힌 가슴을 활짝 열어준다. 아스라이 보이는 등대는 가슴을 설레게 한다.

시드니 주변의 다른 비치들도 제각기 매력을 뽐내지만, 팜비치야말로 힐링을 원하는 도시인들의 안식처 같은 곳이다. ▼



1



4



3



1, 3, 4 팜비치 풍경 2 팜비치의 아름드리나무

2